

다문화시대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

손 각 중**

I. 서론	V. 결론
II. 다문화와 무용창작	참고문헌
III. 다문화적 관점에서 본 현대무용의 실례	Abstract
IV. 다문화시대 현대무용창작의 나아갈 방향	

I. 서론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다문화라는 현상이다. 다문화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현상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위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¹⁾ 최성환의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순수 혈통의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뿌리를 강조하고 자기 민족 중심의 우월감을 고취시키는 역사관이 주입됨으로써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²⁾

그러나 한국사회 또한 21세를 맞이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세계화 속에서 이러한 배타주의나 보호주의만으로는 자국의 문화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며, 이제는 단일민족 우위론의 고정관념과 편향된 일원론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문화 다원주의적 의식을 길러나가야 할 시기이다. 문화 다원주의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문화의 역사, 가치관, 전통의 특수성과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관용의 자세가 요구된다.³⁾

다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한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인류의 중요한 특성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00000000351)

** 한양대학교 교수, 1960938@hanyang.ac.kr

1) 최성환, 이진아(2012),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역할: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위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2, p.287.

2) 앞의 글, p.287.

3) 앞의 글, p.278.

을 인식하고 있다.’⁴⁾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 제7조 1항은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에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⁵⁾ 즉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다문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 서로 공존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조사되어진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100만 명을 넘어서서 2%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추세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태어나게 될 2세들의 증가를 감안하여 본다면 향후 다양한 민족의 증가는 수백만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문화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단일민족으로 지속되어 온 문화적 경향성에 다문화주의라는 경향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문화활동 중 하나인 무용예술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용예술은 문화적인 변동과 지속적인 연관성을 맺으면 발전한 문화적 행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현대무용은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는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한 20세기 이후 대표적인 창작예술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들이 창작활동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인간의 사유와 문화적 경향을 반영하면서 관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는 대표적인 예술장르이다. 이러한 현대무용의 본성에 따라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현대무용창작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본 연구를 출발한다. 즉 우리민족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 아닌 다양한 민족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무용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한다.

이에 문화적 경향성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발전된 창작무용의 방향은 이제 세계화되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우리민족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창작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학문적으로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융합하고 있는 창작 작품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관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현대무용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⁷⁾무용학 연구에서 다문화 현상에서 무용예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는 무용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다문화라는 현상이 교육의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무용작품을 창작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회현상임을 전제하여 현대무용 창작활동에 나타난 타문화에 대한 접근들을 분석하여 다문화시대 한국의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

4)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8, p.305.

5) 앞의 글, p.307.

6) 법무부(2007), 『2007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보고서』(서울: 법무부), pp.1-20, 참고.

7) 다문화의 관점에서 무용예술을 바라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안나(2012), 피나 바우쉬 국가도시 시리지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다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0(5), 17-38.

나경아의 2인(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무용역사기록학』 21, 19-35.

유미희(2014),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무용교육내용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46(1), pp.47-66.

전은자, 김현정(2010), 무용프로그램 수행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31, pp.103-136.

정희자(2009), 다문화체험을 위한 무용 교수 학습프로그램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봄호), pp.197-219.

한 구안나(2012)의 논문은 제시한 피나 바우쉬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과의 차별성은 본 연구는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 초기 현대무용 출발에서부터 문화적인 교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대표적인 안무가의 작품에 나타난 다문화적인 현상을 진단하여 현대무용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시대에 관련된 무용학 연구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단순화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방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어지고 융합되어지고 있는 실제 작품분석을 시도하여 향후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다문화시대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와 무용창작에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20세기 이후 무용가의 자유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모던 댄스와 포스트모던댄스 이후 등장한 신표현주의 무용인 탄츠테아터에서의 문화적 교류현상을 분석하여 다문화시대에 현대무용창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문화의 초기 현상인 서양인의 관점에서 동양문화를 수용한 사례와 동·서양문화의 융합을 통한 다문화적 경향성 양자를 살펴보기 위해 일방향적 수용의 경우, 초기 현대무용에서 나타난 동양무용과 문화를 수용한 루스 세인트 데니스와 테드 쇼운의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서양 문화의 융합현상을 담지하고 있는 두 번째 사례로는 전 세계의 국가 도시 시리즈를 창작한 탄츠테아터의 대표적인 안무가인 피나 바우쉬의 창작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현대무용이라는 용어는 모던댄스와 컨템포러리댄스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용계의 관례 상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는 초기 모던댄스에서부터 컨템포러리댄스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전공이 분류되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현대무용의 영역을 초기 모던댄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창작되어지는 탄츠테아터의 경향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되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다문화와 무용창작

21세기 현대사회는 다문화의 개념이 확대되어진 사회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뒤늦게 직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최근에 등장한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는 사실상 이민, 취업, 결혼 등과 같은 영역에서 확대되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의 불화와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는 문화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화합과 통합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문화 간 통합을 가로막는 생각의 벽을 허무는 것이

8) 황정현(2008), 다문화 사회의 아동문학 수용과 창작 방향, 『한국아동문학연구』 14, p.204.

다. 문화의 벽을 문화로 허물어야 한다.’⁹⁾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 2007년 현재 15만 가구 정도로 파악되나 2020년이 되면 10배로 증가할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단언어/다문화국가로서 필요한 제도와 법, 그리고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현재도 100개의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근거하여 다문화에 대한 개념과 다문화사회에서 예술의 역할, 다문화와 무용창작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양상이며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이미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남국은 다문화 현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다문화 사회의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교통, 수송,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가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인간의 삶의 공간을 전 세계로 확대시켰다. 또 이데올로기의 퇴조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통합 체제의 출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인다. 세계화는 근대 이후 인간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였던 국민국가의 위상을 현저하게 약화시켰고, 나아가 국민적 정체성과 고유성까지도 교란하고 위협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도전은 이제 몇몇 특정 국가에 나타나는 문제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자국 내의 인종적 문화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결합으로 국가를 출범시켜 형성된 경우도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 국가에 특정 인종과 문화가 다수 유입되어 형성된 경우도 있다.¹¹⁾

위의 글에서 보면 다문화는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양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각각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 통합되고 화합되느냐가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된다. 다문화에 대한 협의의 다문화 개념은 기존의 대상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이와 같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차이’에 대한 인정과 타자와의 화합을 유도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가지

9) 권오경(2010),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속학회지』 30, p.43.

10) 왕한석(2007), 『또 다른 한국어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서울: 교문사), p.1.

11)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 예술연구』 28, p.292(김남국(2006),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국회도서관보』 43(5), p.4 재인용).

12) 황정현(2008), 다문화 사회의 아동문학 수용과 창작 방향, 『한국아동문학연구』 14, p.205.

는' 사회를 말한다.¹³⁾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사실상 중심이 부재하고 다양한 문화가 모두 각기 작용하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며, 각각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는 개방적으로 타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 및 전 세계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다문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예술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예술 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예술은 다문화사회를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입장에서 있다. 이에 다문화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

다문화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통합에 있다. 따라서 다문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예술을 통한 문화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다문화 통합에 대한 권오경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통합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구성원간의 화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목적은 상호존중과 평화추구를 통한 건전한 사회형성 및 개인의 자유와 복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통합은 민족의 통합 국가적 통합이라는 현안 앞에 문화적 화합을 추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순혈통주의적 역사인식은 다문화로 형성된 이문화인을 수용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구시대적 의식이 되었고, 그 외중에 북한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한국식 다문화사회이며,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할 사안이다.¹⁴⁾

위의 주장은 다문화 통합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져야함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 또한 다문화 통합을 지향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즉 예술과 문화는 특히 이주민들에게 있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 점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¹⁵⁾ 그 중에서 예술교육을 통한 다문화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현재 활발하게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제 다문화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2010년을 '세계 문화간 대화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한 예로,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10.6.7.)는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간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 행사였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문화의 시대에 더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¹⁶⁾

다문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의 내재적 가치와 필요성을 처음부터 확신했다. 유네스코 헌장(1945)은 회원국들의 독립성 및 완전무결성과 관련하여 세계의 여러 문화들이 가진 '풍요로운 다양성'을 언급

13) 권오경(2010),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속학회지』 30, p.45.

14) 앞의 글, p.46.

15) 최성환, 이진아(2012),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역할: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위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2, p.298.

16) 권오경(2010),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속학회지』 30, p.42.

하고 있다.¹⁷⁾ 이렇듯 다문화 통합은 각 문화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새로운 문화의 창출은 곧 다문화가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이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 통합이 희망하는 사회현상이다.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전체화, 혹은 통일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거듭 만들어내자는 뜻이다. 그래야 문화의 시대에 시대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다양한 문화의 통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다양성에 대한 부정의 관점이다. 즉 다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의 해소를 유도해야만 한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예술을 도구로 하는 통합프로그램이다. '예술은 이념과 신앙, 민족성이 강하게 표출되는가하면 인류 보편적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민족적 특성과 인류보편성을 토대로 생성되는 것이 예술이다. 견주어 말하고 비교해서 다시 만들고, 생성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예술영역이라 하겠다.'¹⁹⁾

이와 같은 측면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다문화 예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 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 예술교육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지고 있다. 즉,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 두 번째로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 세계화 시대의 인력자원 개발'²⁰⁾ 등의 이유로 다문화 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음악, 미술, 연극, 무용교육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 중 무용영역에서는 한국의 전통무용을 교육시킴으로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전통을 새롭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춤을 통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지고 있다. 전은자(2010)의 연구의 경우는 무용프로그램의 수행은 '문화교류의 장과 즐거움을 통한 소통'²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정희자(2009), 유미희(2014)의 연구결과들은 모두 다문화 체험 교육의 중요성과 교과서에서의 다문화교육내용의 포함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정희자(2009)는 "다문화 교육에서 궁극적인 이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태도를 갖도록 돕고, 일반아이들이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판적 사고와 반응의 편견을 교육으로 치유하자"²²⁾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미희(2014)는 한국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이 협의의 다양성의 관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의 다문화 무용교육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호이해와 평등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²³⁾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프로그램

17) 유네스코위원회(2010),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의 대화(서울(집문당), p.1.

18) 권오경(2010),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속학회지』 30, p.46.

19) 앞의 글, p.48.

20) 차윤경 외 2인(2011), 『예술로 배우는 다문화』(서울:(주) 대교), pp.33-39 참고.

21) 전은자, 김현정(2010), 무용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31, p.129.

22) 정희자(2009), 다문화체험을 위한 무용 교수 학습프로그램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봄호), p.216.

23) 유미희(2014),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무용교육내용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46(1), p.61.

개발에 관련된 연구인 나경아 외 2인(2012)의 논문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무용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사회에서 예술 교육 사회를 통합시키고 문화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예술은 문화통합, 사회통합과 같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교육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창작의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장체험으로서 예술교육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상호문화간의 이해도가 단순히 교육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험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통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문화와 무용창작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다문화와 무용창작의 연관관계

다문화사회에서의 예술 활동은 공적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정치와 예술 영역을 교차시켜 개별성의 존중과 보편성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정신 구조를 일궈나갈 수²⁴⁾ 있다. 즉 정책적으로 지향되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라는 큰 틀에서 예술 활동의 역할을 재인식해야만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문화의 관점에서 무용창작의 차원을 살펴보면 무용은 이제 예술가 개인의 활동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의 문제들을 이슈화할 수 있는 도구로 거듭나야만 할 것이다. 즉 무용 활동은 공적활동으로서 무용 활동의 수행을 통해 바야흐로 문화통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무용예술은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발레라는 장르로 독립되어질 때 무용예술은 루이 14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으며, 현대무용의 시작은 기계화 되고 산업화 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탄생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용창작의 행위는 이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육성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표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현대무용은 문화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가며 발전하였다. 초기 현대무용의 대표적인 안무가인 마리 뷔그만의 경우 세계전쟁 이후 만연해 있던 인간 소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작품의 주제로 사용하였으며, 마사 그레이험의 경우는 미국사회의 문제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사회문제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무용예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와 문화들을 안무가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제시하는 무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창작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고 그 문화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시대별 무용예술의 역할을 볼 때 세계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형성은 무용창작의 새로운 방향성 모

24) 강수미(2009), 공공성·타자성·대중성의 예술: 다문화시대의 문화예술의식을 위한 소고, 『철학, 사상, 문화』 8, p.48.

색을 필요로 한다. 국소적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바야흐로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연형태가 되어야만 누구나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술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 사회에서의 무용작품에서는 모든 대중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무용예술의 대중성과 공공성은 몸이라는 매체를 통해 발현되는 무용예술의 본성으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몸짓들을 무대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보다 용이하게 접근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몸짓을 통해 보다 쉽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무용예술은 가지고 있다.

이에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무용창작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대중성을 필요로 한다. 공공성의 경우는 현재 커뮤니티 댄스 공연을 통해 예술인과 일반인의 공동작업을 창출하는 형태로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대중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무용작품을 창작하는 안무가들에게 있어서 공공성과 대중성에 대한 인식은 계층별 많은 차이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창작을 수행하는 예술가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실제 현대무용 전계에서 다문화적 관점의 창작활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무용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I. 다문화적 관점에서 본 현대무용의 실례

본 연구는 현대무용 창작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접근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일방향적인 접근과 다양한 문화의 융합 현상 두 가지 양상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문화적 경향성을 가지는 안무가들의 작업은 매우 자주 발견되어진다. 그 중에서 국내 공연을 수행했던 벨기에 안무가인 시디 라르비쉐 르카위의 경우는 피나 바우쉬와 같이 춤과 연극의 결합을 시도한 탄츠테아터적인 성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 시대의 다양한 문화 간의 충돌과 사회문제들을 이슈화 하여 작품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무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양의 피나바우쉬로 알려진 대만의 린 화이민의 경우는 자기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양의 움직임은 적극 활용하거나 서양 음악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법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한 무대에서 융합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다문화시대를 지향하는 현대무용의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일방향적 접근과 타문화에 대한 융합적 접근 두 가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타문화에 대한 일방향적 접근

모던댄스에서 다문화적 관점의 시도는 초기 모던댄스 무용가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미국의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 Denis, 1880~1968)와 테드 쇼운(Ted Shawn, 1891~1973)였다. 이들은 테니쇼운 무용학교를 설립하고, 테니쇼운 무용단을 결성하여 미국 현대무용 교육과 창작활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의 활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서양인으로서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모던댄스의 역사에서 초기 동양주의라는 경향성을 만들기도 했다.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동양주의 무용에 대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초기 무용의 성격은 영감을 위주로 한 작품이었다. 이시스 담배 포스터에서 받은 영감은 독자적인 무용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많이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종교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자연히 그녀의 통찰력은 ‘동양주의’에 남다른 공헌을 했다. 그녀는 세계를 여행하며 인도, 중국, 일본, 자바 등지의 종교 무용과 궁중무용 및 앗시리아-바빌론 고대 예배의식을 연구했다. 「신화속의 여신」, 「신상(神像)」으로 유명했던 데니스는 낭만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무용 스타일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곡선미, 매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²⁵⁾

이와 같이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자유로운 정신을 춤으로 표현하는 모던댄스의 정신을 통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그의 남편이자 동료인 테드 쇼운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다. 테드 쇼운의 작품인 「아즈텍 *Aztec*」(1913) 단검무용을 추는 그의 모습을 본 데니스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남성 무용수를 발견했다.”고 기뻐했다.’²⁶⁾

데니스와 테드 쇼운의 이러한 작업에서 데니스는 당시의 ‘동양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족을 못 쓰던 사교계 여성들을 비롯 당시 관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국적인 것으로 보였다. 데니스가 만든 인도 춤에는 겉으로 보기에 는 나긋나긋한 팔놀림으로 유명했던 「분향 *The Incense*」(1906)과 몸부림치며 돌진하는 뱀의 모습을 팔로 묘사한 「코브라」(1906)도 있다.’²⁷⁾

이들의 작업은 동양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석을 통해 창작되었는데, 동양의 문화 중 신화, 종교,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심을 통해 다양한 동양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이기도 했던 이들의 동양문화에 대한 해석은 동양적인 움직임의 차용, 음악의 사용, 의상의 사용, 소도구의 사용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신비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후 그들이 타 문화를 해석하여 새로운 춤으로 창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양문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동양춤의 자유로운 해석을 유도한 데니스의 활동과 테드 쇼운의 활동은 동양의 신비함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일방향적인 동양문화에 대한 접근을 이루었던 창작의 경향성이라 규정할 수 있으며, 서양문화 속에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동양무용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모던댄스의 동양문화에 대한 해석은 춤의 외형적인 면에 치중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움직임이나, 의상과 소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무용작품을 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제 동양정신과 체험에 의한 삶에 모습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창작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즉, 신비로운 동양춤의 매력과 곡선의 아름다움, 의상과 소도구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표현의 중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모던댄스의 중심에 서 있던 데니스와 쇼운의 동양문화에 대한 해석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을 통해 무용예술에서

25) 정의숙, 반주은(2000), 『현대무용 인물론』(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93.

26) 앞의 책, p.99.

27) 수잔 오(2002), 『발레와 현대무용: 서양 춤예술의 역사』, 김채현 역(서울: 시공사, 2004), p.113.

최초로 타문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에서 동양에 관심이 높아졌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통해 일반 관객들은 동양문화의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창작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형적인 수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모던댄스의 정신에 의해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용사에 있어서 당시의 현대무용은 발레의 유티주의 이상을 표현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사건이나 자연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정서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로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를 해석하여 자신의 춤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예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20세기 초 형성된 모던댄스의 창작환경의 변화는 무용예술이 대중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대무용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사회나 문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창작 작품을 안무할 수 있는 예술의 결과물이었다. 표현주의 현대무용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세계대전 이후 인간에 대한 반성과 사회 비판적인 시각에 의해서였다. 이에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통해 완성된 데니스와 쇼운의 무용 활동은 초기단계의 문화통합을 위한 초기 단계인 타문화에 대한 일방향적 접근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 문화에 대한 일방향적 접근은 다문화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통합과 문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초기 단계의 경향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자칫 타 문화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다문화 시대의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성 중 두 번째 경향성인 타문화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무용예술 작품이 다문화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문화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타문화에 대한 융합적 접근

현대무용에 있어서 타 문화의 이해를 통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지는 창작활동은 20세기 말에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표현주의 경향의 무용작품이었다. 신표현주의 무용은 탄츠테아터라는 새로운 무용 형식을 만들었으며, 피나 바우쉬(Pina Bausch 1940~2009)라는 무용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피나 바우쉬의 문화적 해석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피나 바우쉬의 다문화적인 경향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녀의 다문화적 창작 작업은 국가·도시 시리즈에서 가장 돋보이는 경향성이었다. 피나 바우쉬의 국가·도시 시리즈는 총 14편으로 유럽에서부터 동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문화들을 컨템포러리댄스로 구체화 시켰다.

피나 바우쉬는 국가·도시 시리즈를 창작할 당시에 표현하고자 하는 국가에 6개월에서 1년을 체류하면서 실제적인 문화 체험을 한 후 무용단원들과의 문화체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실제 경험한 에피소드들을 작품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무를 하였다. 이러한 창작 방법을 통해 그녀가 새롭게 만들어 낸 '탄츠테아터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하나의 컨템포러리 댄스 안에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드러내며 전개해 왔다.'²⁸⁾

28) 구안나(2012), 피나 바우쉬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다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5), p.19.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피나 바우쉬의 작품에 나타난 다문화적 성격은 초기 모던댄스 안무가들이 동양문화를 해석하는 방식과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즉 그녀는 현실 세계의 일상적인 삶의 문화들을 직접 작품 안에 삽입시킴으로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대에 형상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페스」(2003)의 경우는 터키의 목욕문화와 가부장제 사회의 특성, 혼잡한 교통현상 등을 여과 없이 작품에 삽입시켜 터키를 상징하는 문화에 대한 피나 바우쉬의 해석들을 형상시키고 있다.

또한 「네페스」(2003)보다 앞서 발표한 「마주르카 포고」(1998)의 경우는 과거 유럽에서 강대국에 속해 있던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를 주제로 하면서 항구도시의 낭만과 함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무대에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서울을 주제로 한 「러프 컷」(2005)의 경우는 한국의 문화인 김장 문화, 서울의 혼잡한 교통상황, 한국인의 빨리빨리의 습관, 국악연주에 전통춤을 현대무용화 하는 장면들을 배치함으로써 한국적인 문화들을 무대에 형상화하고 있다.

피나 바우쉬의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들은 각각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들을 무대에 나열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안무가 및 무용수들의 해석의 결과물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각 문화를 나타내기 위해 바우쉬가 흔히 사용한 기법 들은 일상적 움직임, 각 도시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배치, 전통음악과 전통놀이의 활용, 영상을 사용한 무대에서의 표현 한계의 극복 등과 같은 부분에서 다문화적인 경향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피나 바우쉬의 창작 작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적인 성격은 초기 모던댄스와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초기 모던댄스가 동양문화의 외형적인 차용의 단계에서 진보하여 탄츠테아터에서는 각각의 문화 자체를 무대에 형상화하고, 더 나아가 안무가와 무용수가 실제로 체험한 문화들을 움직임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창작하고 있다. 즉, 타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안무가가 자신의 문화적 해석력으로 새로운 문화에 접근하는 창작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화적 통합으로서 무용창작의 사례라 지적할 수 있다. 즉 피나 바우쉬의 작품은 하나의 작품 안에서 한 문화의 정체성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함께 자신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타인의 문화적 배경이 동시에 작용하여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실제 다문화적 관점에서 현대무용의 상호 문화적이고 문화통합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초기 모던댄스의 경우는 상호 문화적 경향성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탄츠테아터는 문화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초기 모던댄스의 경우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문화를 어떻게 해석하여 작품화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동양문화가 서양인인 안무가에게 문화적 영향을 미쳤으며, 하나의 무용스타일로 완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탄츠테아터의 경우는 하나의 작품 안에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해석과 그 결과를 무대에 형상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현대무용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무용작품을 창작해야만 한다는 예술 환경에 처해 있다. 이 지점에서 현대 안무가들에게는 다양한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문화해석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현대무용 안무가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들의 문화와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타문화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창작할 수 있는 예술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IV. 다문화시대 현대무용창작의 나아갈 방향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사회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무용 창작이나 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의 관점에서 모던댄스 이후 타문화에 대한 수용을 통한 창작의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현대무용 창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서양의 무용가가 동양의 문화를 해석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초기 모던댄스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신비스러운 동양문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안무가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되어지는 현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신표현주의 탄츠테아터라는 무용형식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탄츠테아터 형식을 창안한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작품 중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현상으로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문화체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 안무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무대에 그대로 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체험한 문화에 대한 해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안무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다문화 통합을 위한 현대무용 창작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시대에 현대무용 창작은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민족이 공유하는 공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 무용창작에 활용해야만 대중들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안무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된 무용언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통된 무용언어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문화체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체험의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인데, 직접체험의 경우 다양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문화권에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체험을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간접체험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여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시대 안무가들에게는 무용음악적 임태크닉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현대무용 창작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시대 예술이 지향해야하는 점은 예술을 통해 다양한 민족들이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문화적인 갈등의 해결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경우도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들로 인한 사회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민족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부족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통한 다문화교육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현대무용창작도 현대사회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계층, 민족을 뛰어넘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창작을 수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육의 차원이 아닌 공연감상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연현장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 활동들이 수행되어야만 다문화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시대 현대무용을 창작하는 안무가들에게는 문화적 해석력과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무교육을 통해 보다 창의력 있는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위의 두 가지 방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무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안무가를 육성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무용교육의 경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미흡한 것이 기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문화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안무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해석과 사회변화 및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안무가는 작품 창작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합 또는 융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화 및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현대무용 창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무용계의 현상 중 다문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용현상은 교육적 차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커뮤니티댄스의 개념을 수용한 전문예술가와 일반인들의 공동 창작 작업들이 공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차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연활동은 국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이나 민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대무용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창작활동을 수행하여 세계적인 무용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 양상 중 하나인 '다문화'라는 사회현상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현대무용 창작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다문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문화 시대에 예술의 역할, 다문화 사회와 무용창작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후 실제 타문화를 해석하고 무용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대무용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대무용 창작에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수용은 초기 모던댄스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신표현주의의 탄츠테아터에서도 발견되었다. 루스 세인트 테니스와 테드 쇼운에 의해서 수용된 동양문화는 그들의 동양문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외형적 동양문화를 무용창작에 활용하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피나 바우쉬를 대표로 하는 탄츠테아터의 경우는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타문화를 해석하는 과정과, 타문화를 무용작품에 나열하듯이 배치하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모던댄스의 경우는 타문화에 대한 일방향적 접근을 통한 작품창작이 이루어지는 반면 탄츠테아터는 타문화와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무용창작이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가 지

향하는 사회통합과 문화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모던댄스의 경향성보다는 피나 바우쉬의 탄츠테아티의 창작 경향성이 보다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시대가 지향하는 문화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현대무용 창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첫째,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통해 안무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타문화를 융합시킬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의 필요성과, 둘째,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는 작품창작의 필요성, 셋째, 위의 두 가지 창작 방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해석력을 높일 수 있는 안무교육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다문화시대 현대무용 창작은 이제 더 이상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만을 돋보이게 하는 공연활동에서 한 걸음 진보하여 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창작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라는 키워드는 이제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무용예술의 창작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제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현대무용 창작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대무용 창작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은 현대무용 안무가들의 개방적 자세와 창작을 위한 구체적인 안무방법에 대한 연구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현대무용의 공공성, 문화 해석력과 사회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안무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대무용은 발생 초기부터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발생된 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안무가의 자유로운 정신을 통해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무용장르라 할 수 있다. 이에 두 가지 연구 방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문화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무가를 육성할 수 있는 안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위해서는 안무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현재 수행되어지고 있는 안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네이션 글레이저 저(2003).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 최현미 (역).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1.
- 법무부(2007). 『2007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법무부.
- 수잔 오(2002). 『발레와 현대무용:서양 춤예술의 역사』. 김채현(역). 서울: 시공사. 2004.
- 왕한석(2007). 또 다른 한국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 교문사.
- 유네스코위원회(2010).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서울: 집문당.
- 정의숙, 반주은(2000). 『현대무용인물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차윤경 외 2인(2011). 『예술로 배우는 다문화』. 서울: 대교출판사.
- 강수미(2009). 공공성·타자성·대중성의 예술: 다문화시대의 문화예술의식을 위한 소고. 『철학·사상·문화』, 8: 22-54.
- 구안나(2012). 피나 바우쉬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다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5): 17-38.
- 권오경(2010).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요학』, 30: 41-73.
- 나경아 외 2인(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무용역사기록학』, 21: 19-35.
- 유미희(2014).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무용교육내용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46(1): 47-66.
-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8: 289-315.
- 전은자, 김현정(2010). 무용프로그램 수행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31: 103-136.
- 정희자(2009). 다문화체험을 위한 무용 교수 학습프로그램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봄): 197-219.
- 최성환, 이진아(2012).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역할: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위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2: 285-316.
- 황정현(2008). 다문화 사회의 아동문학 수용과 창작방향. 『한국아동문학연구』, 14: 203-217.

논문투고일 2014. 12. 15

심사일 2014. 12. 20

심사완료일 2015. 01. 14

A Study on Creative Choreography of Contemporary Dance in the Multicultural Age

Son, Gak Jung

Professor, Han Ya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creative modern dance, which moves toward the multicultural age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s the tendency of creation in dance creation site, the cultural phenomena of Korea, and current status in regards to whether or not creative modern dance for a variety of audience is mad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of creation of modern dance in the multicultural age.

First, creation of modern dance in the multicultural age needs positiv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Second, awareness of publicness is necessary in creating modern d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to perform more creative activities through dance education by enabling them to improve their ability of interpreting culture and adaptability to social changes.

Keywords: Dance(무용), Choreography(안무), Modern Dance(현대무용), Multicultural age(다문화시대), Contemporary Dance(컨템포러리 댄스)